

프랑스의 언어, 마그레브 언어의 사용과 전수*

이 은 령**

■ 목 차 ■

I. 머리말	2. 외국어로서 마그레브 아랍어의 교육
II. 프랑스에서 마그레브 아랍어	3. 이주민의 언어로서 마그레브 아랍어 교육
1. 고전아랍어와 지역아랍어의 이분법	IV. 프랑스의 언어통합정책과 마그레브 아랍어 전수의 문제점
2. 마그레브 아랍어	1. 언어통합정책에서 이주민의 언어전수
3. 프랑스에서 아랍어과 마그레브 지역어의 위상	2. 마그레브 아랍어 전수의 문제점
III. 프랑스의 언어, 마그레브 아랍어의 교육	3. 마그레브 아랍어의 전수를 위한 제언
1. 프랑스의 언어들	V. 맺음말

[초록]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 경계를 넘나드는 국제 노동 이주가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으나 이주민의 모어와 출신언어에 대한 권리는 정주국의 언어처럼 보장되지 못한다. 그럼에도 소통과 경제적 이유, 그리고 정체성의 문제로 언어는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전승된다. 본 연구는 프랑스 사회에서 주변화 된 마그레브 이주민 언어의 사회적 위상과 전수의 양상을 살펴 다문화 사회에서 상호문화적으로 서로를 인정하며 갈등을 최소화할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프랑스 국내에서 90년대 말과 2000년대 중반에 일어났던 대도시 근교 폭동 사건 등으로 이주민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스 사회에서 마그레브 아랍어는 타자의 언어로서 차별의 기제가 되었다. 화자 수에서 프랑스어 다음으로 규모가 큰 마그레브 아랍어는 프랑스 내에서 300년 동안 교육되어 온 언어이다. 이 과정에서 문어-표준 아랍어와 구어-지역 방언이라는 이분법은 문어-표준 아랍어를 우위의 지점에 올려놓았고 구어-지역 방언 교육을 공교육의 틀 밖으로 밀어냈다. 그럼에도 구어-지역어의 수요는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스의 언어이자 이주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7-361-AM0059)

**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HK부교수. eunryounglee@pusan.ac.kr

민의 언어, 그리고 마그레브 지역의 생활 언어인 마그레브 지역어의 교육과 전수를 위한 언어정책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문어 아랍어만을 강조하는 교육은 이주민 자녀 세대에게는 허구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는 위험을 인식하고, 구어 아랍어의 사회적 기능과 언어적 특성에 따라 교육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을 검토한다.

주제어 : 아랍 지역어, 마그레브 아랍어, 이주민, 언어 전수, 언어정책, 표준 아랍어, 프랑스의 언어

I. 머리말

프랑스는 2001년에 프랑스어총괄실의 명칭을 「프랑스어와 프랑스의 언어들의 총괄실」(Délégation générale à la langue française et aux langues de France, DGLFLF, 이후 총괄실)로 바꿨다. 그리고 프랑스의 언어로 인정된 언어의 목록을 발표했다. 프랑스의 언어로 인정된 언어 중, 마그레브 아랍어는 그 어느 국가의 공식 언어가 아닌 ‘비영토 언어(langues non-territorialisées)’로서 프랑스의 언어 중 하나로 인정받았고, 대부분 식민 시기와 그 이후에 프랑스로 이주한 북아프리카 마그레브 지역 출신 이주민의 언어로 쓰이는 언어다. 마그레브 아랍어는 현재 프랑스 내에서 3~4백만 정도의 화자가 있는 것으로만 알려져 있는데(Barontini, 2013 : 5), 프랑스어 다음으로 화자수가 많은 언어이다. 이러한 사회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가 추진하는 이주민의 출신언어교육에서 마그레브 아랍어는 소외되고 주변화되어 있다.

마그레브 아랍어는 사실상 하나의 언어가 아니라 마그레브 지역에서 쓰이는 여러 방언을 분류하는 총칭이다. 이는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에서 쓰이는 아랍어의 변종들을 집합적으로 부르는 용어이며, 마그레브 아랍어는 일반적으로 아랍어의 하위 부류로 간주한다. 상위 부류의 아랍어 범주에는 쿠란 경전의 언어인 고전 아랍어(arabe classique), 혹은 문어 아랍어가 포함된다. 이 두 계층의 언어가 사회 인식적으로 나뉘고 있지만, 이 두 언어의 사회적 기능이 완전히 분리되어 서로 경계 넘기가 어려운 것은 아니다. 예컨대, 마그레브 아랍어도 구어로서 종교적 공간에서 고전 아랍어로 된 경전을 읽지 못하는 대중과 소통의 언어로 쓰이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 아랍어(표준, 지역 아랍어의 총칭)는 언어 내부적 다양성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으로도 복잡한 위상을 갖고 있다. 우선 프랑스어 다음으로 화자 수가 많다는 마그레브 아랍어는 노동이주를 통해 프랑스에 정착한 북아프리카 출신 이주민들의 언어일 뿐만 아니라 하르키(harki), 피에누아(pied noir), 그리고 북아프리카 출신 유태인들도 쓰는 프랑스인들의 언어이다. 두 번째로는 마그레브 아랍어는 프랑스 사회 내에서 주변화 되고 차별받는 언어이다. 화자 수로는 두 번째인 이주민의 언어지만 국립동양어 학교(INALCO)와 몇 고등교육기관 외에는 공교육의 커리큘럼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세 번째로는 마그레브 아랍어는 북아프리카라는 큰 시장을 가진 언어이며, 이 언어의 숙련은 이주민의 자녀들이 부모의 출신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에게는 언어자본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상으로 보아 마그레브 아랍어의 사회언어학적 문제와 교육은 다각적인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할 대상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이주민의 출신언어 교육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는 마그레브 지역의 아랍어에 주목하여 다음의 두 가지 측면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우선 프랑스에서 표준 아랍어(arabe standard moderne)와 지역 아랍어(arabes dialectaux)로 이원화된 언어교육의 배경을 사회언어학적 특이점에서 살펴보고, 둘째, 이원화된 언어교육에서 지역 아랍어의 소외와 주변화가 프랑스가 지향하는 언어통합정책이라는 거시적 정책 내에서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며 또한 그 파급효과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바탕으로 마그레브 지역 출신 이주민과 그 자녀 세대의 출신언어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2장에서는 프랑스에서 고전 아랍어와 지역 아랍어로 이분되어 인식되는 배경을 살펴보고 마그레브 아랍어의 특징과 프랑스 내에서 가진 사회적 위상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마그레브 아랍어가 프랑스의 언어로 채택된 배경을 살펴보고 외국어로서, 이주민의 언어로서 마그레브 아랍어가 교육되는 양상을 고찰해 본다. 4장에서는 이주민의 언어통합정책이 강조되는 프랑스에서 마그레브 아랍어가 전수되는 양상과 문제점을 살펴 이를 극복할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프랑스에서 마그레브 아랍어

일반적으로 아랍어는 고전아랍어, 표준아랍어, 지역 아랍어 등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프랑스의 언어로 인정된 마그레브 아랍어는 고전 아랍어나 표준아랍어가 아니라 어느 국가의 언어도 아닌 지역 아랍어의 한 종류로서 인정받는 것이다. 지역 아랍어라는 총칭이 포함하는 다양한 지역 방언은 그룹 내의 변이형과 그룹과 그룹 사이의 경계에 있는 변이형을 무시했을 때, 지리적 위치를 기준으로 크게 4개의 그룹으로 분류될 수 있다.

중동지역, 베두인, 마그레브, 사하라이남 지역으로 나뉘는데, 마그레브 지역의 변이형은 흔히 아랍 마그레빈이라고 불리는 ‘*Darija*’로서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에서 쓰이는 지역어를 말한다. 이들 지역어는 고전 아랍어와 표준 아랍어와는 다른 특이점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특이점은 지역 아랍어와 표준 아랍어가 다른 언어로 인식되게 만드는 원인이다. 따라서 표준 아랍어와 지역 아랍어 중 하나만 선택적으로 교육하는 것은 아랍어의 변이형 간의 격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두 언어의 차이점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수 있다.

1. 고전 아랍어와 지역 아랍어의 이분법

아랍어는 흔히 고전 아랍어와 지역 아랍어(arabes dialectaux)를 포함하는 명칭으로서 이들의 사회적 기능의 차이 때문에 흔히 ‘디글로시(diglossie)’라는 양층(兩層)언어현상으로 기술된다. 디글로시는 마르세(Marçais)가 1930년에 발표한 논문 “La diglossie arabe(아랍어의 양층언어현상)”에서 도입한 용어로서 그리스어 ‘διγλωσσία’(bilingualisme, 이중언어주의)를 번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퍼거슨(Ferguson)이 이 용어를 크레올이나, 그리스어, 그리고 아랍어 등에서 나타나는 이분화 된 언어 사회적 기능을 기술하기 위해서 차용하면서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쿨루글리(Kouloughli, 1996)에 따르면, 국립동양어학교 아랍어과 교수로서 프랑스의 아랍어 연구의 초석을 다졌다고 평가되는 마르세는 아랍어의 양층현상을 일종의 치유할 수 없는 언어문화적 현상으로 인식했다. 나아가 마르세는 양층언어현상을 프랑스 식민지 언어정책을 정당화하는 패권주의의 도구로 사용하였다. 콜랭(Colin, 1945)은 마르세의 오리엔탈리즘을 이어받아 ‘고전아랍어도 구어 아랍어도 현재 모로코의 언어 문제를 해결해줄 수 없으므로, 세 번째 해결책으로 프랑스어의 확산을 제안할 수 있으며 프랑스어는 모로코인의 문화어로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Kouloughli,

1996).

이후 아랍어의 양층언어현상에 대한 언어학적 논의는 퍼거슨이 양층언어현상을 언어의 특정한 구조적 관련성과 기능적 구분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널리 퍼졌다. 그는 디글로시의 상황에서는 상층 변이형과 하층 변이형의 언어가 사회언어학적으로 각각 다른 기능을 갖게 되며, 상층변이형은 '주로 공식적 상황이나 문학, 그리고 교육에 쓰이고 하층 변이형은 대개 비공식적 상황이나 대화나 가정에서' 쓰인다고 구분 지었다(오명근, 1990 : 126). 그러나 퍼거슨은 양층언어현상을 한 언어공동체에서 매우 안정된 언어상태로 보고 있다는 점과 상층 변이형은 문어체 고전 아랍어로, 하층 변이형은 구어체 방언으로 이분화하고 수직적 관계로 설정함으로써 고전 아랍어와 구어체 방언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언어 형태를 인정하지 않고 '아랍어의 언어 상황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윤용수, 2008 : 34).

영어권 사회언어학 연구에서는 검퍼츠(Gumperz)가 퍼거슨의 디글로시 개념을 더욱 강화하고, 피쉬맨(Fishman, 1972)에서는 보다 확대되는 형태로 발전했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블랑(Blanc, 1960)과 바다위(S.M. Badawi, 1973) 등이 아랍어에서 나타나는 언어현상은 디글로시의 현상으로 기술될 수 없음을 지적하면서 5개의 계층으로 구분하였다.¹ 특히 이들은 한 담화 단위 내에서 다양한 언어 형태(혹은 계층)가 번갈아가며 쓰일 수 있고, 이러한 언어 계층의 혼용은 담화의 내용이나 성질에 의해 지배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블랑과 바다위의 계층이론은 아랍어의 다양한 언어 형태를 연속체(continuum)로 보는 엘 핫산(El-Hassan, 1977, 1978)에 의해 반박되었는데, 엘 핫산은 특히 현대표준아랍어와 교육 교양 아랍어의 다양한 방언 변이형들이 서로 불연속적이지도 동일하지도 않으며, 변이형에는 점진성만 존재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쿨루글리는 이러한 엘 핫산의 주장에서 언어변이형을 서로 불연속적인 형태로 보지 않고 언어현상이 어떠한 안정성이나 규칙성을 갖지 않는다는 것과 상층 변이형은 의사소통 상황의 격식 정도가 높아지면 그에 따라서 증대된다는 결론을 기반으로 아랍어의 사회언어학적 현실을 적확

1. 바다위는 아랍어의 계층현상을 다음과 같이 5개의 언어 형태로 나누어 설명했다.

① 전통 고전 아랍어(classique traditionnel) ② 현대 고전 아랍어(classique contemporain) ③ 교육 교양 방언(dialectal cultive) ④ 계몽 교양 방언(dialectal éclairé) ⑤ 문맹자의 방언(dialectal des illetrés)

하게 분석한 연구로 평가하고 있다.

고전 아랍어와 지역 방언 아랍어의 사이에 생겨난 현대 표준 아랍어의 존재는 아랍어 언어사회를 삼층언어현상(triglossie)으로 제안하는 바탕이 되었다. 현재 표준 아랍어는 흔히 중간언어(arabiyya wusta, arabe médian, middle language)로 불리기도 하는데 엘 핫산과 바다위는 이를 ‘교양 구어 아랍어(spoken educated arab)’로 명명한 바 있다. 교양 구어 아랍어라는 명칭에서도 드러나듯, 화자가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그가 구사하는 아랍어는 구어를 기반으로 하되 고전 아랍어의 문법규칙과 어법을 지키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 중간언어는 교육받은 사회계층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언어 형태로 현재 대학, 언론, 정치 및 외교의 영역에서 구어로 확장되고 있다.

이 외에도 아랍어의 변이형을 연속체로 보는 견지에서 스펙트로 글로시로 규정하는 입장(오명근, 1990) 등 다양한 사회언어학적 이론들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언어 형태를 변이형의 차원에서 다루는 세 가지 입장만을 개괄적으로 고찰했는데, 그 이유는 아랍어 내에서 고전 아랍어와 지역 아랍어 간의 이분법이 이주민의 출신언어 전수와 교육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고전 아랍어와 지역 아랍어에 대한 담론이 이주민의 언어와 언어통합정책의 문제에서도 대립하기 때문이다. 특히 프랑스에서 마그레브 아랍어는 프랑스의 언어로 인정되면서도 이주민의 언어, 외국어로서 교육되고 있으며, 여기서도 고전 아랍어와 지역 아랍어의 이분법 때문에 빚어지는 문제들이 오히려 이주민의 언어를 보호하고 전수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마그레브 아랍어

마그레브 아랍어가 어떤 언어인지에 대한 견해는 학자마다 다소 다르다. 우선, 마그레브 아랍어라는 명칭은 지역 아랍어라는 명칭과 같이 하나의 언어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며 세르킬리오니(Cerquigliani, 2003 : 196)에 따르면 이집트의 서쪽 끝부터 대서양까지의 지역에서 쓰이는 유사한 방언들을 규합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실제로 마그레브 아랍어는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라는 세 국가의 지역어에 한정하여 쓰고 있으며 이들 지역민의 모어로 불리고 있으나 그 어느 나라의 공용어로 채택되지 않았다. 따라서 프랑스에서 마그레브 아랍어는 프랑스의 언어로 고려될 수 있으며 통상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출신의 이주민 공동체의 마그레브 아랍어로 간주된다.

이 지역의 언어는 양층언어현상으로 그 특징이 설명되기도 한다. 바론티니(Barontini, 2007 : 20)도 마그레브 아랍어는 마그레브 지역에서 쓰이는 아랍어 방언의 총체를 말하는 언어학적 범주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적 구분은 마그레브 아랍어의 사용 양상을 드러내 주기는 부족한데, 그 이유는 마그레브 아랍어는 마그레브 지역이라고 일컫는 지역보다 더 광범위한 지역(모리타니아, 리비아, 몰타 섬, 프랑스 등)에서도 쓰이는 언어를 지칭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그레브 아랍어는 마그레브라고 불리는 지역 내에서도 언어 간 변이형(variation intra-linguistique)이 엄연히 존재하므로 사실상 두 언어 병용을 의미한 디글로시(diglossie)의 현상을 보인다고보다는 폴리글로시(polyglossie) 즉 다언어 병용의 양상을 띤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다언어병용 양상은 마그레브 언어의 다양성으로 증명된다. 예컨대 모로코와 알제리에서는 지역 아랍어 외에도 베르베르어가 지역민의 모어로써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르킬리오니에 따르면 이 지역에는 두 개의 모어가 존재하는데 이는 모로코 아랍어(ʿad-darja), 알제리 아랍어(ʿad-darja)와 베르베르어이다. 이들 두 지역에서 지역 아랍어와 베르베르어의 화자 수는 각각 40~50%, 20~30% 정도로 알려져 있다(Cerquigioni, 2003 : 194).

마그레브 아랍어라는 총칭으로 분류될 수 있는 지역어들이 이질적인 언어인가에 대한 견해는 2.1에서 본 바와 같이 이론적으로는 변이형의 연속체로 간주한다. 그러나 마그레브 출신 화자들에게는 이 지역의 언어들이 동질 하지 않으며 실제 상호인식이 불가능할 정도로 형태, 통사 및 어휘적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 지역 아랍어를 모두 분류하거나 그 특징을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일반적으로 알제리 아랍어, 튀니지 아랍어, 그리고 모로코 아랍어라고 불리는 지역어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3. 프랑스에서 아랍어와 마그레브 지역어의 위상

프랑스에서 아랍어는 4~5백만 화자를² 가진 제2언어이며, 초등교육에서 대학, 그랑

2. 아랍어 화자의 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주어진 예가 드물다. DGLFLF에서 제시한 바로는 3~4백만이고 Alessio(2009)에서는 4~5백만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랍어 화자 수는 베르베르어를 포함한 아랍 방언을 통틀어 추산한 것이다.

제할 등에서 모두 아랍어 교육과정이 있다. 문제는 각 교육 과정의 불안정한 프로그램과 수요 공급의 불균형이다. 예컨대 프랑스 내 아랍어 교수의 수는 2010, 2011의 218명에서 2012, 2013년에는 187명으로 줄어들었다. 2010~2011년에는 중등교원 자격시험(CAPES)을 폐지했고 더불어 고등 교원 자격시험(agrégation)에서는 단 두 명만 채용했다. 4년 동안 교수 수급은 14.22% 감소하였던 반면 같은 기간 학생 수는 7천에서 9천으로 28% 증가했다.³ 아랍어 교육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의 문제는 초등학교에서 아랍어를 수강하는 5만 명의 학생 수가 중등학교 과정에서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2011년 기준, 중등교육에서 아랍어 수강학생은 6천 명 정도인데 중국어를 이수하는 학생은 2만 명에 이른다⁴ 점과 무슬림 이주민이 600만 명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프랑스의 중등 교육 내에서 아랍어의 교육은 다른 외국어 교육과 비교하면 매우 저조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박단(2014)은 단순히 프랑스 언어정책에서 아랍어에 대한 무관심으로 말미암은 아랍어 교사의 부족과 강좌 미개설의 문제보다는, 자국어 중심의 프랑스 언어정책과 프랑스 내 무슬림 이주민과 주류 사회의 갈등에서 찾고 있다. 특히 박단(2014)은 근래에 와서 ‘탈식민화의 영향 및 ‘악마화’된 무슬림 이민자에 대한 이미 지 탓에 아랍어의 위상이 일정 정도 쇠퇴해 온 것’으로 보고, 프랑스의 주류 세력들이 “외국인-이민자-마그레브-아랍어”를 동일 선상에서 인식하며, 아랍어 전수를 원하는 이들이 “극단적인 이슬람주의자”로 낙인찍힐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아랍어 교육의 쇠퇴가 과연 이주민에 대한 반감과 이들에 대한 부정적 사회적 표상의 문제로만 환원되는 것일까?

역설적이지만 아랍어 교육의 쇠퇴는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마그레브 지역으로부터의 노동 이주가 대규모로 이루어진 시점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⁵ 특히 마그레브 출신의 노동 이주민이 증가하면서 아랍어 교육에 대한 수요도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이주민을 부정적으로 표상하는 주류 세력의 정치와 언론 담론 탓에 아랍어에 대한 수요도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부정적 시각은 아랍어가

3. *Le Monde* (2014년 2월 11일) 인터넷 판 참조.

4. “L’arabe, une langue d’avenir”, *Le Point* (2011년 5월 2일) 인터넷 판 참조.

5. “L’arabe, une langue de France sacrifiée”, *Le Monde Diplomatique*(2014년 2월) 인터넷판 참조.

이슬람이라는 종교와 프랑스 도시외곽 지역의 계토화에 대한 담론이 정치와 언론 공간에서 형성되면서부터이다. 그러나 공교육에서 아랍어의 수요 감소는 아랍어나 아랍어를 쓰는 사람에 대한 차별 때문만인지, 혹은 공교육에서 아랍어의 수요가 전체 아랍어 수요에 대한 감소 현상을 동반하는 것인지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마그레브 지역 출신들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 이주민들은 그들의 자녀세대와 구어 아랍어, 즉 방언으로 소통한다. 특히 이주민들의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세대는 구어 아랍어를 쓰고, 때에 따라서 정주국의 언어인 프랑스어로 소통하는 경우도 있다. 모하메드(Mohamed, 2003)는 프랑스에서 태어난 마그레브 이주민 2세대 청소년들의 언어사용에 관한 조사에서 학교에서는 프랑스어만 쓰는 경우가 42.9%, 프랑스어와 마그레브 아랍어를 동등하게 쓰는 경우가 32.2%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마그레브 아랍어만을 쓰는 경우가 72.3%에 이르고 프랑스어와 병용하는 경우는 12%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 결과를 보면, 마그레브 아랍어가 특히 가정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언어 전수도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학교에서도 프랑스어와 동등하게 사용되는 빈도가 30%를 넘는 실정에서 마그레브 아랍어에 대한 수요 자체가 감소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주민들은 실제로 아랍 문화학교나, 종교 기관, 혹은 라이시테(laicité)를⁶ 고수하는 어학 기관에 그들의 자녀를 보내 언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더욱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프랑스의 언어를 사용하는 화자들 사이에서 세대 간 언어 전수율을 고찰해 보면, 프랑스 자생의 지역어들이 10~30% 정도인데 반하여, 비영토 언어의 전수율은 매우 높다. 특히 지역 아랍어(베르베르어 포함)들은 50~60%까지의 높은 전수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주한 기간이 오래되지 않은 1세대들 사이에서 언어 전수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Alessio, 2009 : 60).

현재 프랑스에서는 중등교육과정에서 아랍어 교수의 부족과 강좌의 미개설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다. 프랑스 교육부가 2014년 아랍어 전문 중등 교원을 충당하지 않고 보조 교사를 채용하여 운영하면서 아랍어 수강 학생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보고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11.3장에서 언급했듯이 2010년과 2014년 사이, 교사는 14.2% 줄었던 것과는 달리, 같은 기간 학생 수는 7천 명에서 9천 명으로 28% 증가했다.

6. 정교분리의 원칙으로 특정 종교에 경도되지 않고, 또한 특정 종교에 적대적이지도 않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교육정책의 악재는 학생들이 공교육을 벗어나 종교, 문화 단체 등의 강좌를 쫓아가는 현상을 만든 원인이기도 하다.

프랑스에서 아랍어 교육은 특히 초, 중, 고등학교에서 모두 쇠퇴의 경향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언어 학습에 대한 수요 자체의 감소가 아니라, 아랍어 교육 지원 기반이 약하고, 마그레브 지역 국가의 재원에 의존하는 출신언어와 문화교육의 한계 때문에도 빚어진 결과임을 간과할 수 없다.

Ⅲ. 프랑스의 언어, 마그레브 아랍어의 교육

1. “프랑스의 언어들”

1992년 「지방어와 소수어를 위한 유럽헌장」(Charte européenne pour les langues régionales ou minoritaires, 이후, 헌장)을 통해 유럽 연합은 개인과 집단의 언어권리를 규정했다. 이 헌장은 유럽의 지역 언어와 역사적으로 소수인 언어가 민주주의와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원칙에 근거하여 보호되어야 함을 천명한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1999년에 이 헌장에 서명했지만, 헌법 제2조 “공화국의 언어는 프랑스어다”와 충돌된다는 이유로 헌장은 프랑스 국회에서 비준을 받지 못했고 따라서 헌장의 가입국 자격을 얻지 못했다. 실제로 프랑스는 헌장에 서명할 당시에 이미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명시한 바 있다.

(...) dans la mesure où elle ne vise pas à la reconnaissance et la protection des minorités, mais à promouvoir le patrimoine linguistique européen, et que l'emploi du terme de “groupes” de locuteurs ne confère pas de droits collectifs pour les locuteurs des langues régionales ou minoritaires, le gouvernement de la République interprète la Charte dans un sens compatible à la Constitution.(Eysseric, 2005 : 66)

단, 헌장이 소수에 대한 인정과 보호를 목적으로 삼지 않고, 유럽의 언어 유산을 보호하며, 화자 “집단”이라는 용어 사용이 지역과 소수 언어를 사용하는 화자에 대한 집단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공화국 정부는 헌법과 양립할 수 있는 의미 내에서만 헌장을 해석한다는 조건하에서.

유럽연합의 언어정책에 대한 국내의 정치적 반감을 반영하면서도 총괄실은 현장과 유럽연합의 언어정책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현장의 제3조를⁷ 따라 75개에 이르는 프랑스의 지역어와 소수언어의 목록을 작성하여 프랑스의 언어로 인정했다. 프랑스의 언어들이란 프랑스어 외에 프랑스의 시민이 공화국의 영토에서 다소 오랫동안 써 온 지역어 혹은 소수어를 말하며, 어떠한 국가의 공식어가 아닌 언어를 말한다.⁸ 이러한 프랑스의 언어에 대한 정의에 따라서 프랑스의 언어들에는 프랑스의 국내 및 해외 영토에서 쓰이는 언어와 프랑스 영토에서 자생하여 사용되는 언어가 아닌, 이주를 통해 유입된 언어도 포함된다. 그러나 프랑스로 유입된 이주민의 언어 중, 화자 수는 많지만 타 국가의 공식어인 포르투갈어나 중국어 등은 프랑스의 언어가 될 수 없다. 다시 말해, 프랑스의 시민이나 시민의 공동체에서 쓰이는 언어라고 할지라도 타 국가의 공용어인 경우는 프랑스라는 국가의 언어로 지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언어 중 아랍 방언(arabe dialectal)은 프랑스의 국민이 쓰는 언어다. 아랍 방언은 아랍 국가들의 공용어인 고전 아랍어와 구분되며 구체적으로 특정 민족에 제한되어 규정된 언어가 아니므로 프랑스의 언어들에 포함되었다. 특히 아랍 방언과 같이 특정 국가의 공식어가 아니면서 프랑스에서 쓰이는 언어는 비영토 언어(langues non-territorialisées)로 불리기도 한다. 비영토 언어로 분류된 언어는 기본적으로 프랑스로 이주한 이주민의 언어이자 프랑스 내에서 오랫동안 전수되어온 언어로서 아랍 방언, 서아르메니아 언어, 베르베르어, 유대-스페인어, 로마니, 이디쉬 등의 6개 언어이며⁹ 이들 언어는 교육 과정에서는 ‘langues vivantes’라는 이름으로 교육되고 있고, 법적으로는 외국어이다.

7. 1항. Chaque Etat contractant doit spécifier dans son instrument de ratification, d'acceptation ou d'approbation chaque langue régionale ou minoritaire, ou chaque langue officielle moins répandue sur l'ensemble ou une partie de son territoire, à laquelle s'appliquent les paragraphes choisis conformément au paragraphe 2 de l'article 2.

8. 현재 프랑스어와 프랑스의 언어들 총괄실의 누리집에 게시된 프랑스의 언어들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On entend par langues de France les langues régionales ou minoritaires parlées traditionnellement par des citoyens français sur le territoire de la République, et qui ne sont langue officielle d'aucun État.” 이 정의는 2009년에 발행된 기관보(Référence 2009, Les langues de France)에 제기된 정의문에서 “다소 오래전부터(depuis assez longtemps)”라는 표현이 빠진 것이다.

9. 6개의 언어는 분류상의 언어의 수며, 각각의 변이형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

프랑스는 정책적 담론 상에서는 언어의 다양성이 국가의 문화적 유산이며, 경제 발전의 동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스위스나 이탈리아, 벨기에 등의 다언어주의 정책이나 프랑스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캐나다의 공동체주의 언어정책과는 매우 다르다. 아르킨데기(Harguindeguy, 2009)에 의하면 강력한 단일언어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프랑스는 언어를 단순히 국가 체제 유지를 위한 소통의 도구만으로 생각하고 있는 신공화주의적 정책을 펴고 있다. 예컨대, '공화국의 언어는 프랑스어다'라는 프랑스의 헌법 제2조가 보여주듯이 프랑스 영토 내에서 프랑스어는 다른 언어와 비교하여 배타적인 특권을 갖는다.

프랑스어는 빌레르 코트레 칙령이후부터 유지되었던 모든 행정 소통의 언어라는 특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비교해 지역어와 비영토 언어는 행정적 차원에서 그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다.¹⁰ 또한, 프랑스의 언어들이 모두 동등한 위상을 누리는 것도 아니다. 프랑스의 지역어와 비영토 언어는 분리하여 규정되고 있다. 2008년 7월 헌법 75조 1항에 '프랑스의 지역어는 프랑스의 유산에 포함된다'고 명시함으로써 지역어에 대한 법적 지위를 규정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의 지역어는 공교육 내에서 교육되며, 대중매체에서도 해당 언어로 된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보장된다. 심지어 누벨 칼레도니아에서는 특정 공직 시험을 해당 지역의 언어로 치를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프랑스의 지역어들과는 달리 프랑스의 비영토 언어는 지역어가 갖는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한다. 예컨대, 비영토 언어들 중 화자들이 오랫동안 존재해 왔던 언어들도 살아있는 언어(*langue vivante*)로 교육되지만, 지역어가 아닌 외국어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마그레브 아랍어는 실제 프랑스 내에서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 다음의 2와 3장에서 언어 교육의 현황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외국어로서 마그레브 아랍어의 교육

1999년과 2001 사이에 프랑스에서 아랍어 평가와 관련되어 어떠한 아랍어를 교육할 것인가의 문제로 두 학파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있었다.¹¹ 1995년까지만 해도 프랑스

10. 단 인도주의적 원칙에 의해, 프랑스어를 모르는 사람이 정부와 소통할 필요가 있을 때는 통역을 허락한다.

바칼로레아 아랍어 평가에서는 문어 아랍어(arabe litteral)와 아랍 방언(arabe dialectal)이 모두 선택 과목이었다. 평가는 구두시험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아랍 방언의 구두시험 지원자가 너무 많아지자, 이를 필기시험으로 바꾸었다. 이에 반해 문어 아랍어는 구두 시험의 방법을 유지했다.¹²

표면적으로 드러난 대립의 양상은 공교육 내에서 고전 아랍어 또는 표준 아랍어와¹³ 아랍 방언 중 어떠한 아랍어를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였다. 실제로 프랑스 내에서 아랍어 교육은 코란 경전의 언어이자, 언론의 언어이면서 문어(langue écrite)인 고전 아랍어를 교육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고전 아랍어가 아닌 아랍 방언을 교육해야 한다는 주장은 코베(Caubert)를¹⁴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코베는 세르킬리오니의 프랑스의 언어들에 대한 보고서에 기반을 두고 고전 아랍어는 어떠한 사람의 모어도 아닌 언어이며, 아랍어 화자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배우고 일상에서 쓰는 언어는 그 지역의 아랍 방언이라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프랑스 내에서 실제로 쓰이는 언어는 고전 아랍어가 아니라 가정에서 전수하고 공동체에서 사용되는 지역 아랍어이기 때문에, 공교육(특히 중등교육 이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역 방언을 교육해야 한다는 태도에서는 다양한 변이형이 공존하고 있는 아랍어 어공동체에서 고전 아랍어라는 추상적인 언어만을 교육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현재 아랍어 사용 지역뿐만 아니라 프랑스에 있는 아랍어 화자의 언어적 현실과 필요를 무시하고 지역 언어(langue vernaculaire)를 억압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문어 아랍어만을 교육과 평가의 대상으로 삼는 정책은 결국 다양한 구어 방언의 쇠퇴를 가져오게 되는 역효과를 창출할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며 문화적 정체성을 조작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특히 정체성의 문제에 대해 코베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11. Cheikh(2010 : 94)에 따르면 프랑스의 동양학의 전통에 따라 고전아랍어의 중요성을 강조한 H. Pérès, C. Pellat, R. Blachère 등과 마그레브 아랍어의 교육을 강조한 W. Marçais, G.S. Colin, H. Mercier 등의 학문적 대립이 이어온 갈등이다. 이러한 대립은 국립동양어학교에서 고전 아랍어(표준 아랍어)와 마그레브 아랍어를 완전히 분리한 학제를 만들게 되었다.

12. 프랑스 내에서 바칼로레아와 그 외 공교육에서의 아랍어 평가의 변화 추이에 대해서는 Latiri (2003 : 56)를 참조.

13. 여기서 말하는 ‘고전 아랍어’는 코란의 언어를 바탕으로 현대화된 표준 아랍어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14. 국립동양어학교 (INALCO)의 마그레브 아랍어 학과장.

De plus, glissant de langue à l'identité, on assigne les jeunes français (sic) de parents originaires du Maghreb qui désirent passer une épreuve sanctionnant leurs compétences acquises en famille, à une identité arabe unique et totalement mythique. (Caubert, 2001 : 211)¹⁵

게다가 언어를 정체성의 문제로 슬쩍 떠넘기면서 가정에서 배운 언어능력을 무시하는 시험을 보고자 하는 마그레브 출신 부모를 가진 프랑스 청년들에게는 완전히 신화적인 단일한 아랍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전 아랍어만을 강조하는 교육이 허구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경고와 구어 아랍 방언의 사회적 기능과 언어적 특성에 따라 교육도 분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최근에 제기된 것이 아니다. 이미 프랑스는 오래전부터 제국과 식민주의의 경협을 통해 두 개의 아랍어 교육을 법으로 지정했다. 1795년 칙령에서 현재의 국립동양어학교(INALCO)의 전신이었던 동양어학교(Ecole des Langues Orientales)에서 문어 아랍어와¹⁶ 구어 아랍어를 함께 가르칠 수 있는 전문 교수를 의무화함으로써 프랑스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아랍어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¹⁷ 이렇게 제도화된 아랍어는 라틴어 처럼 사어가 아닌 현재 사용되는 언어(langue vivante)를 교육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므로 고전 아랍어와 민중의 아랍어가 같이 교육되어야 할 필요성을 일찍부터 인식했다고 하겠다.

국립동양어학교는 1669년 개교 이후부터 이론적인 언어교육보다는 상업과 외교라는 실용적 목적의 외국어 교육을 강조했던 교육 기관이다. 따라서 문학 아랍어에만 집중했던 드 사시의 교육은 당시 프랑스가 필요로 했던 상업적 협상이나 번역에 필요한 인재를 배출하기 어려웠다. 결국, 드 사시의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8년이 지난 1803년부터 구어 아랍어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교수를 두었고 1820년에는 구어 아랍어과가 문어 아랍어과와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한 구어 아랍어과는 1916년 '구어 아랍어'에서 '마그레브 아랍어'과로 개명하여 오늘날까지 이르

15. 재인용 Carpenter Latiri (2003 : 55).

참고 Caubert, Dominique 2001, "L'arabe dialectal en France", *Arabofrancophonie*, Les cahiers de la francophonie 10, Haut Conseil de la Francophonie, L'Harmattan, Paris, 199-219.

16. 이후 "arabe littéral"로 명칭이 바뀌었다. 여기서 'littéral'은 글자로 쓰인 언어, 즉 문어를 말한다.

17. 국립동양어학교에서 이루어진 아랍어 교육의 역사에 대해서는 Troupeau(1997)를 참조.

게 되었다. 현재에는 국가별 지역 아랍어를 독립된 강좌로 운영하고 있다.

3. 이주민의 언어로서 마그레브 아랍어 교육

프랑스에서 이주민의 출신언어를 자녀세대에 교육하는 프로그램은 출신언어와 문화 교육 ‘ELCO’(Enseignements de langue et de culture d’origine)가 유일하다. 1977년부터 시작된 ELCO는 출신 언어와 문화 교육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알제리, 크로아티아, 스페인, 이탈리아, 모로코, 포르투갈, 세르비아, 튀니지, 터키 등 총 9개국이 파트너로 함께 참여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초기에는 마그레브 국가인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의 언어에 한정하여 진행되었다가 유럽연합이 발족하면서 유럽 내 이주민의 언어로 확장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각국은 프랑스에서 본국 출신의 노동 이주민의 자녀가 부모의 모어를 학습하는 데 필요한 교사를 양성하고, 교사에 대한 재원을 지원하여 프랑스의 교육 기관에 제공한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주민 자녀 세대에게 부모의 출신 언어를 전수하는 데에만 목적을 두지 않고, 프랑스 내에서 해당 국가의 언어를 학습하고자 하는 아동에게도 확대 적용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수를 출신 국적으로 보자면, 모로코 출신 학생들의 참여도가 가장 높고 그 뒤를 이어 터키와 알제리 출신 학생들이다. 특별히 마그레브 지역의 하나인 모로코 출신은 전국적으로 2만 5천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이 중에서 300여 명만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진행되는 ELCO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CE1(2학년)과정의 아동들부터 고등학생까지 적용되며 부모를 따라 이주한 자녀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재편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문제로 쇠퇴 일로에 놓여 있다. 그 일례로 이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아동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1984년에 약 13만 7천이었다가 94년에는 10만, 그리고 2003년에는 7만 5천으로 줄어들었다.¹⁸ ELCO가 쇠퇴하게 된 것은 초기에는 정규 수업 시간 내에 이루어지던 수업이 학교 정규 교육 외 시간인 저녁이나 수요일로 변경되면서부터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출신 언어보다는 다른 외국어 교육을 선호하는 경향과 이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주변

18. 참고 Bouysse, V.(2004). Quel avenir pour les enseignements des langues et cultures d’origine? *Actes de l’université d’automne organisée par l’académie de Créteil les 25-28 octobre 2004.*

화되는 현상 등으로 분석된다.¹⁹ 또한, 마그레브 아랍어와 같은 방언은 CE1과정에서 바로 교육하지 않고 초등학교 고학년에 이르러서야 소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ELCO의 교육 내에서도 존재하는 표준 아랍어와 마그레브 방언의 차별을 그대로 드러내 주고 있다. ELCO가 지향하는 언어교육은 문어 중심보다는 구어 중심의 교육이고, 이 교육을 받은 학습자들이 부모의 출신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 사회에 즉시 적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인 점을 고려했을 때, 마그레브 방언의 교육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프랑스의 최고통합위원회(Haut Conseil à l'Intégration)는 이러한 학생수의 감퇴와 사회통합에 저해된다는 주장을 기반으로 ELCO의 폐지를 제안했다.²⁰ 그 이유는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사와 아동들이 모두 학교와 사회로부터 소외의 위협이 있기 때문이며 교육되는 언어가 이미 외국어로서도 교육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를 들어 ELCO는 궁극적으로 이주민의 사회통합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최고통합위원회는 출신 언어와 문화 교육을 민간 문화, 종교 단체들이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동시에 초등학교와 중, 고등학교에서 이주민의 언어는 외국어로서 교육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외국어이면서, 언어 정책적으로는 프랑스의 언어, 사회 표상의 측면에서는 이주민인 마그레브 아랍어는 어떠한 방식으로 프랑스의 언어로 유지될 수 있을까?

사실상 고전 및 표준 아랍어와 마그레브 지역 아랍어의 구분 문제는 실제 지역적 갈등이 가시적인 북아프리카의 해당 지역 내에서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프랑스 내에서 지역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프랑스에서 이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던 것은 우선 프랑스 사회에서 아랍어 화자에게는 이 대립이 강력하게 제기되지 않았던 것이고 두 번째로는 다른 아랍 국가들처럼 프랑스 공교육에서는 문어인 표준 아랍어가 교육되기 때문이다(Cheikh, 2010 : 94). 그러나 (비)영리 단체의 아랍어 교육에서 마그레브 아랍어 교육이 점차 확대되어가는 오늘날,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정체성과 문화적 갈등이 증폭되는 마그레브 이주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프랑스의 언어로 인정

19. 참고 Lanier, V.(2010). "Etat des lieux des enseignements de langue et culture d'origine en Cote d'Or-Etude réalisée de 2008 à 2010."

20. Haut Conseil à l'intégration, 2010, "1990-2010, 20 ans au service de l'intégration", 42쪽.

된 마그레브 지역어가 프랑스 사회 내에서 갖는 문화적 역할을²¹ 고려한다면 이 언어의 교육을 다시 공교육의 영역으로 강화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IV. 프랑스의 언어통합정책과 마그레브 아랍어 전수의 문제점

1. 언어통합정책에서 이주민의 언어 전수

언어를 사회통합의 실현 도구로 보는 언어통합정책에서는 유럽연합의 지침을 따라 다중언어교육, 이주민의 정주국 언어 훈련, 상호문화적 대화를 바탕으로 하는 교육, 그리고 시민권 획득과 직접 결부된 언어와 문화적 능력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 이를 언어통합의 정책적 차원에서 실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은 이주민이 필요로 하는 언어의 다양성, 이주민에 대한 상호문화적 환대, 공정하고 투명한 정주국 언어의 평가체계와 방법, 그리고 다중언어교육이다. 이 중에서 최근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이 다중언어 교육이다.²² 이주민의 가장 이상적인 언어능력 모델은 정주국의 언어를 숙련하고 출신언어를 구사하는 완벽한 이중언어 구사자이다.

이주민의 언어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다중언어능력을 양성하는 전략으로 이주민의 모어 혹은 출신국 언어를 자녀 세대로 전수하는 것이 적극 장려되고 있다. 가족 단위를 이용한(조부모-부모-자녀) 감성적 접근 방법으로 조부모 세대의 언어를 손자 세대로 전수하는 것에 대한 효과를 인식하면서 가족 단위 외에도 이주민 공동체나 주거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공동체를 활용한 언어 전수도 전략적으로 추진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언어통합정책에서는 방언으로서 이주민의 언어를 언급하는 예가 그 어디에도 없다. 이주민의 언어가 지역어와 같은 소수언어의 위상을 갖고 있으므로, 이주민 자녀 세대가 이를 기꺼이 학습하여 전수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어로서의 이주민의 언

21. Caubert(2006)는 프랑스에서 근교 지역을 중심으로 아랍 방언, 특히 알제리의 아랍 방언인 Darja의 사용 실태를 분석하여 프랑스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주변부의 언어가 프랑스의 문화 현상에서 새로운 요소로 떠오르는 것에 주목하여 아랍 방언에 대한 인식 변화의 동인으로 보고 있다.

22. 이은령(2014) 참조.

어에 대한 위상을 재고할 필요가 있음에도 어떤 출신언어를 장려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고려는 부재한다.

2. 마그레브 아랍어 전수의 문제점

1) 공교육 외 마그레브 아랍어의 전수

현재 프랑스에서 마그레브 아랍어의 교육은 INALCO를 제외하면 타 아랍 방언 교육과 마찬가지로 문화, 종교적(비)영리단체와 사교육 기관과 가정에서(조)부모와 손자의 가족적 유대를 통해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문화, 종교적 단체와 사교육 기관에서 마그레브 아랍어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공교육 밖의 언어 교육은 2000년대 들어와서 증가하였는데 이 현상에는 80년대 말부터 시작되었던 일련의 사건들이 관련되어 있다. 우선 1991년 마그레브 지식인(알제리와 튀니지의 반정부 인사들이) 프랑스로 망명하여 현재 이름을 떨치고 있는 아랍어 학교와 교육기관을 세우면서부터이다. 여기에서는 공교육에서 주변화되어 아랍어 교육을 자유롭게 받지 못했던 학생들의 언어교육을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 진행하게 되었다. 이후 2001년 9.11 사건과 전쟁으로 말미암아 아랍-이슬람 공동체에 대한 시선이 극단적으로 변화하게 되었고 마그레브 출신 이주민에게 적대적인 담론적 낙인찍기 등의 현상이 두드러졌다(Cheikh, 2010).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오히려 이주민의 자녀 세대에게는 자신들의 정체성과 출신 문화에 대한 욕구가 증폭되는 기제가 된 것이다. 다시 말해, 출신국의 언어와 종교라는 문화적 원천을 찾게 되는 “정체성적 자각(repli)”을 촉발하게 되었다. 사실상 그 이전까지는 아랍 마그레빈이라는 출신성분은 오히려 프랑스 내에서 아랍 문화 출신의 이주민들이 오히려 프랑스 사회통합의 견인차 구실을 한 동력이었다. 이주민들 내부에서 일어난 이러한 변화로 말미암아 프랑스 사회에서 마그레브 아랍어 ‘darja’를 중심으로 일어난 다양한 문화적 활동이 프랑스 주류 세력에 대항하는 이주민 소외 계층의 문화 운동으로 비춰지기도 했으나, 사실상 이는 마그레브 아랍어가 프랑스의 언어와 접촉하여 나타나는 문화적 혼종의 양상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예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2) 협회 학교에서의 마그레브 아랍어 교육

2000년대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비영리단체 중 파리를 중심으로 하는 일 드 프랑스 지역에 있는 6개의 협회 학교(école associative)가 약 1만 4천 명의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다. 협회 학교의 학생은 북아프리카 출신과 우루두어가 모어인 학생들이 있으나 마그레브 출신 이주민 자녀들이 다수를 구성한다. 규모 면에서 가장 큰 학교로는 에콜 드 파리(Ecole de Paris), 에스프와(Esprit) 등이 있다. 이들 학교에서는 유럽연합이 권장하는 유럽 언어공통참조기준(CECRL)을 따르지 않는다. 수업은 언어 능력 수준이 아니라 나이별로 구성되며 마그레브의 언어와 문화 모두 수업에서 다룬다.

협회 학교에서는 마그레브 지역어인 구어 위주로 수업을 하며 교재 또한 자신의 출신국에서 편찬된 교재를 쓰거나, 프랑스 내 마그레브 지역어 전문가들이 편찬한 프랑스어-아랍어의 이중 언어 교과서를 사용한다. 이들 교과서에서는 모두 문어 중심의 프랑스 공교육의 교재와는 달리 구어 중심의 교육이 표방하듯이 모음표기가 된 표기법을 쓴다.

3) 마그레브 아랍어 전수의 문제점

협회 학교에서 마그레브 아랍어와 아랍어 교육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협회 학교나 그 외 종교, 및 문화 기관을 통해 마그레브 지역 아랍어를 학습한 학생들은 고등 교육 기관을 통해 다시 프랑스의 교육 기관으로 수렴된다. 그러나 최고통합위원회나 프랑스 교육부가 이 언어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협회 학교나 종교 문화시설에 맡긴다면, 프랑스는 프랑스의 언어에 대해 소극적인 공동체주의적 정책으로 방향을 바꾸는 결과를 낳게 된다. 또한, 이러한 정책은 이주민에게 출신 언어교육을 맡겨두는 셈이 되어 이주민의 사회통합과 소수언어 보호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부모 세대의 출신언어가 가정에서 잘 전수되었을 때 자녀 세대의 학습 성취도도 훨씬 긍정적인 결과를 보인다는 연구들(Cummin 2001, Oribi 2010)이 이주민 언어 전수가 정주국 사회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는 담론을 형성하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하는 언어정책은 소수언어의 전수를 해당 언어의 화자들에게만 맡겨둠으로써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소수언어의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결국, 이주민의 언어를 전수하는 방법에서 공교육과 가정 내 전수(협회 학교 포함)의 효과를 비교하여 양자택일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바론티니가 주장한대로 공교육 내

에서 이주민의 언어 전수 문제와 이주민 가정 내에서 언어 전수의 문제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서로 비교할 수 없으며, 사실상 이 두 방법은 상호보완적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Barontini, 2013 : 335).

마그레브 출신 이주민의 언어 전수에서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주민이 자신의 모어나 지역 언어에 대해 갖는 인식의 차이이다. 마그레브 아랍어 화자라고 해서 자신의 출신 지역 외의 언어를 모두 구사하는 것이 아니며, 알제리 아랍 방언과 모로코 아랍 방언이 유사하지만 쉽게 상호 소통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비슐레(Biichlé, 2007)의 연구에서도²³ 잘 드러나는데, 프랑스의 언어들에서 아랍 방언이라는 총칭으로 묶인 언어들 실제로는 매우 이질적인 언어들 집합이라는 점이다. 비슐레는 각 이주민이 정체성의 선택(choix identitaire) 과정을 통해 자신의 모어와 고전 아랍어, 그리고 마그레브 지역의 아랍 방언에 대한 표상을 통해 이들이 고전 아랍어와 자신의 모어, 그리고 타 지역어에 대한 인식이 각각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에서는 ① 고전 아랍어가 진정한 아랍어라는 인식과 변이형의 차이를 무시하고 마그레브 지역의 아랍어는 같은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는 화자와 ② 공통점은 있지만 지역적에 따라 차이를 인식하는 화자, 그리고 ③ 지역적 변이에 따라 마그레브 아랍어에서 모로코 아랍어, 알제리 아랍어, 그리고 튀니지 아랍어가 모두 다르다고 인식하는 화자와 같이 세 가지 유형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마그레브 출신의 이주민이 “아랍어”라는 이름으로 묶인 다양한 지역의 언어들 인식하는 세 가지 유형을 통해 그들이 가진 언어적 필요성이 각각 다를 수 있다. 마그레브 전체를 하나의 지역으로 인식하는 초 지역적 정체성(identité supra locale)이 존재하는 반면, 민족국가적 정체성(identité nationale)을 가진 화자들도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Biichlé 2007 : 122)는 고전 및 표준 아랍어와 더불어 각 지역의 아랍 방언이 개별적으로 전수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3. 마그레브 아랍어의 전수를 위한 제언

프랑스에서 프랑스의 언어로 인정받음과 동시에 이주민의 언어로 주변화 되어 있는

23. 105명의 마그레브 출신의 이주민을 대상으로 아랍어에 대한 표상을 분석한 연구이다.

마그레브 아랍어는 사회통합을 꿈꾸는 프랑스에게 무거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프랑스의 언어 중에 자생 지역어는 헌법이 보장하는 “언어권리”가 있지만, 비영토 언어인 마그레브 지역의 아랍 방언은 프랑스의 지역어를 구사하는 화자의 전체 수를 넘어서는 규모의 화자를 갖고 있음에도 법적인 권리가 없는 외국어이다. 사실상 프랑스의 언어들에 대한 인정 문제는 해당 언어공동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지만 프랑스의 통합성(unicite)과 링구아 프랑카로서의 프랑스어 고수 원칙을 배반한다는 이유로 법적 지위를 부여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²⁴ 이러한 모순적 모습이 오늘날 프랑스의 언어정책이 가진 모순적인 측면이다.

그러나 프랑스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가진 이주민과 프랑스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주민 자녀 세대의 마그레브 아랍어의 구사 능력에 대한 제도적 인정의 부재는 이 언어능력을 직업적 이점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자기 폄하를 야기한다(Barontini, 2007 : 26). 이와 더불어 이분화된 사회적 기능의 차이로 표상된 표준 아랍어(문어)와 마그레브 아랍어와 같이 구어 아랍 방언 간 차별의 문제도 남아 있다. 두 언어를 단순히 아랍어의 변이형으로 보고 모든 아랍어 화자가 두 변이형을 자유롭게 바꿔 쓸 수 있다는 인식 또한 문제이다. 따라서 프랑스 공교육 내 아랍어 교육에는 반드시 구어 아랍어인 마그레브 아랍어의 교육이 다시 제도화되어야 하며, 공교육 밖의 교육 기관에서는 마그레브 아랍어 교육을 유럽언어공통참조기준과 같은 수준별 교육으로 체계화하여 마그레브 아랍어의 구사 능력을 제도적으로 인정받을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이주민의 언어, 특히 아랍어를 총체적으로 호명하는 사회적 행태는 이주민의 언어가 지나치게 단순화되는 문제를 낳는다. 본 연구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아랍어만 놓고 보더라도 다양한 말하기 방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랍어에 있는 수많은 지역 방언들은 단순히 유사한 변이형으로 규정할 수 없는 언어들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마그레브 아랍어는 유럽연합과 프랑스가 의욕적으로 옹호하는 다중언어주의 정책 내에 적극적으로 편입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주민의 언어는 이주민의 정체성을 이루어, 프랑스라는 국가적 정체성과 대립하는 대상으로 타자화 하는 태도를 재고해야 할 것이다. 물론 언어가 화자의

24. 프랑스 헌법이 보장하는 언어권리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http://www.legifrance.gouv.fr/> 참조.

문화적 정체성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이주민의 정체성은 문화적 정체성과 마찬가지로 고정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주국의 문화와 상호접촉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해 나가는 역동적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마그레브 언어를 구사하는 것 자체를 규정되기조차 어려운 '마그레브 정체성'으로 고정하고 단재(斷裁)하는 것은 마그레브 언어와 화자의 언어 권리를 훼손하는 일이 될 것이다.

V. 맺음말

지금까지 프랑스에서 프랑스의 언어로 제정된 아랍 방언, 그중에서도 마그레브 아랍어가 가진 사회언어학적 문제를 살펴보았다. 마그레브 아랍어는 프랑스 내 이주민들의 언어 중 화자 수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언어이다. 그러나 이 언어는 유럽 언어현장이 보장하는 언어 권리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중등 및 고등학교 교과 과정 내에서 쇠퇴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본 연구에서는 표준 아랍어와 아랍 방언을 사회적 기능으로 이분하고 수직적 관계로 표상하는 관점에 있다고 보았다. 이미 사회언어학적 이론화 과정을 통해 아랍어는 고전, 표준, 그리고 문어라는 상층 변이형과 구어, 통속, 방언으로 규정되는 하층 변이형으로 이분화된 것이 이 언어의 교육 현장에서도 고착되어왔고, 이것은 프랑스 내에서 마그레브 아랍어의 교육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다.

프랑스 공교육 커리큘럼 내에서 문어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마그레브 아랍어의 교육이 공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은 실제 프랑스 내에서 마그레브 아랍어를 학습하고자 하는 이들의 현실적 필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또한, 프랑스의 언어를 제정한 취지에도 벗어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프랑스 사회가 당면한 이주민의 통합과 갈등의 문제를 공교육에서 마그레브 아랍어 교육의 정상화와 활성화를 통해 조금이나마 완화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프랑스 내의 마그레브 아랍어의 경우는 다문화, 다언어사회로 나아가는 우리 사회가 장래에 만나게 될 수 있는 언어정치와 정책적 문제를 반추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는 향후 마그레브 아랍어가 이주민의 언어로서 갖는 사회적 위상과 전수 양상이 어떻게 변모해

가는지에 대해 지속적인 고찰을 하여, 다문화 사회에서 소수언어 정책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박단(2014). “프랑스 내 아랍어 교육과 무슬림 이민자문제”. 『서양사학연구』, 제30집, 한국서양문화사학회, 105-130.
- 오명근(1988). “口語體 아랍語 教育에 대한 小考(方言에 나타난 發音과 文章의 特徵을 中心으로)”. 『外國語教育研究論集』, 제4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교육연구소, 39-62.
- 오명근(1990). “아랍어 표준어와 방언에 관한 고찰-디글로시아를 중심으로-”. 『言語와 言語學』, 제16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 종합연구센터 언어연구소, 125-144.
- 윤용수(2008). 『아랍어의 양층언어현상과 말씨바꾸기』. 한국학술정보.
- 이은령(2014). “유럽연합의 언어통합정책과 다중언어주의- 이주민 언어의 상호문화적 인정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 연구”. 『불어불문학연구』, 제97집, 한국불어불문학회, 485-521.
- 임기대(2008). “다언어국가로서 알제리의 언어 사용·정책에 관한 연구- 베르베르어의 경우”. 『한국프랑스학논집』, 제62집, 한국프랑스학회, 23-48.
- 장니나(2010). “프랑스 이민정책에 따른 이민자 언어-문화 교육 상황과 정책에 관한 고찰”. 『지중해지역연구』, 제12권 제2호, 부산외국어대학교 지중해연구원, 95-114.
- Alessio, M.(2009). Les relations entre les langues nationales officielles et les langues régionales ou minoritaires. *7th Annual Conference Proceedings – European Federation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Language*, 59-62.
- Barontini, A.(2007). Valorisation des langues vivantes en France : le cas de l'arabe maghrébin. *Le français aujourd'hui*, 158, 20-27.
- Barontini, A.(2010). Radiographie sommaire des pratiques de l'arabe maghrébin en France. *Homme et Migration*, 1288, 104-109.
- Barontini, A.(2013). Locuteurs de l'arabe maghrébin – langue de France : Une analyse sociolinguistique des représentations, des pratiques langagières et du processus de transmission. Thèse de Docteur, INALCO.
- Beacco, J-C et Cherkaoui Messin, K.(2010). Les politiques linguistiques européennes et la gestion de la diversité des langues en France. *Langue Française*, 167, 95-111.

- Biichlé, L.(2007). Langues et parcours d'intégration d'immigrés maghrébins en France. Thèse de Docteur, Université Stendhal – Grenoble III.
- Carpenter Latiri, D.(2003). L'arabe, butin de guerre?. *Glottopol*, 1, 54–69.
- Caubert, D.(2004). La “darja”, langue de culture en France. *Homme et migrations*, 1252, 34–44.
- Cerquiglioni, B.(1999). Les langues de la France, Rapport au Ministre de l'Education Nationale, de la Recherche et de la Technologie et à la Minist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 Cerquiglioni, B.(2003). *Les langues de France*. Paris : PUF.
- Cheikh Y.(2010). L'enseignement de l'arabe en France – Les voies de transmission. *Homme et migration*, 1288, 92–103.
- Dufour, J.(2009). La langue arabe, une et multiple. *Langues et cité*, 2–3.
- Eysseric, V.(2005). Le corpus juridique des langues de France, Délégation Générale à la langue française et aux langues de France.
- Ferguson, C.A.(1959). The Arabic Koine. *Language* 35(4), 616–630.
- Harguindéguy, J–B. et Cole, A.(2009). La politique linguistique de la France à l'épreuve des revendications ethnoterritoriales. *Revue française de science politique*, 939–966.
- Kouloughli, D–E.(1996). Sur quelques approches de la réalité sociolinguistique arabe. *Égypte/Monde arabe*, 27–28.
- Lüdi, G. et Py, B.(2003(1986)). *Etre bilingue*. Bern : Peter Lang.
- Marçais, W.(1930). La diglossie arabe. *L'Enseignement Public*, 97, 401–409.
- Mohamed, A.(2003). *Langues et identité – Les jeunes maghrébins de l'immigration*. Paris : IMA édition.
- Oribi, A., Courtinat, A. et Prêteur, Y.(2010). Socialisation interculturelle et dynamique identitaires chez les jeunes adultes issus de l'immigration maghrébine en France. *International Review of Education*, 56, 683–703.
- Troupeau, G.(1997). Deux cents ans d'enseignement de l'arabe à l'école des langues orientales. *Arabian Humanities*, 4–5.

■ Abstract ■

Usage and Transmission of a Language of France, Maghrebin Arabic Dialect

EUNRYOUNG LEE***

The labor migration crossing the international boundaries became a common phenomenon, but the immigrants often do not have the language right in their resident countries. Nevertheless, languages, often considered as a symbol of the cultural identity, are transmitted to the children from their parents generation for the communication. This study aims at investigating the status of immigrants' languages, marginalized in French society and the ways to minimize social conflict on the basis of the inter-culturality. The recognition about migrants was deteriorated due to the riots in French metropolitan banlieues occurred in the end of 1990's and the mid-2000's. In those circumstances, the Maghreb Arabic language, as a language of others, is the very criteria for the social differentiation. Maghreb Arabic, second language in the numbers of speakers, has been teaching in France for over than 300 years. Nevertheless, the literal Arabic has come to occupy a point of superiority in the dichotomy between colloquial dialect and literal, standard Arabic. Standard Arabic extruded the regional dialect in the public education of France, but the need for the education of the colloquial dialect rather increased. In such a situation it is imperative to design a linguistic policy for the Maghreb dialects in France. This research is aware of the risk of the education emphasizing only the literal Arabic since it may transmit a fictional cultural identity to the children of immigrants. Finally, we suggested the need for providing the language edu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learners' linguistic need and social function of the Maghreb Arabic.

Keywords : arab dialect, maghrebin arab, immigrant, language transmission, language policy, modern standard arab, languages of France

■ 논문투고 : 2014년 8월 31일 논문심사 : 2014년 9월 10일-9월 25일 게재확정 : 2014년 10월 8일

*** PUSAN NATIONAL UNIVERSITY